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23주일 · 순교자 성일
제33권 41호(다해) 2013·9·8

[묵상]



성베드로의
십자가형

<루카 조르
다노, 16c>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사랑하는 모든 가족을 미워하고
가진 모든 것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사랑의 근원이시고 만물의 주인께서
제게 사랑스럽고 소중한 모든 것을
미워하고 버리라고 하시니.....
저를 사로잡는 누구든, 무엇이든
그것에 대한 애착이나 미련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다른 모든 사랑은 불완전하나
예수님의 사랑만이 완전하시니
그분의 사랑을 깨달은 뒤엔
사랑하지 못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저의 십자가라 할지라도.....

저의 것이 아직 남아 있어
예수님의 것으로 채울 수 없다면,
저의 모두를 빨리 버리고
예수님의 것으로 완전히 채워
예수님의 사랑과 소유 모두가
나의 것이 되게 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으로 제가 가득 채워지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것입니다. -框-

martinlee0501@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식 연락처) : (310)720-824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면담의 날(신부님, 수녀님) 레지오 마리아	오후 2:00 오후 8:00
목요일	성시간(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병자영성체(1째주)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울프레아(4째주)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그룹반) M.E. Sharing(3째주)	오전 9:30 오후 7:00
토요일	유아세례(작수달 4째토요일) 소년 레지오 마리아 배튼 청년모임	오후 6:00 오전 9:00 오후 6:00
주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메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안나회/양업회, 성모회 자모회/대건회/원서회 • 꾸리아 3째주 - 모임의 날 • 요셉회 • 제대회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전 9:30 오후 1:00 오후 1:45 오후 1: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일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이장환 마르띠노 (310)326-4350 Ext.103/106
진교수녀 : 오향숙 마우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미사	(연)박문규 프란치스코 (생)
주 일 낮 미사	(연)이병자 로사, 이종기 대건안드레아, 김치곤 바오로, 이용식 베드로, 유정복 베네딕도, 이경용 야고보, 전시용 요한, 고준희 제임스, 주용범 아브라함, 김상억 베드로 & 김경옥 데레사 (생)이운조 클라라, 박인규 요셉, 김충섭 마틴 & 김정심 크리스티나 가정, 황학수 마리아 & 김정선, 최수복 클라라, 토런스 북구역 가정들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지혜서(Wisdom) 9,13-18

화답송 ○주님, 당신은 대대로 저희 안식처가 되셨나이다.



주님, 당신은 대대로 저희 안식처가 되셨나이다.

○인간을 먼지로 돌아가게 하시며
당신은 말씀하시나이다. “사람들아, 돌아가라.”
천년도 당신 눈에는 지나간 어제 같고,
한 토막 밤과도 같사옵니다.○
○당신이 그들을 끌어 내시니, 그들은 아침에 든
선잠 같고, 사라져 가는 풀과 같사옵니다. 아침에
돌아나 푸르렀다가, 저녁에 시들어 말라 버리나이다.
○저희 날수를 헤아리도록 가르치소서. 저희 마음이
슬기를 얻으리이다. 돌아오소서, 주님, 언제까지리이까?
당신 종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침에 당신 자애로 저희를 채워 주소서. 저희는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주 하느님의
어지심을 저희 위에 내리소서. 저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주소서. 저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실어주소서.○

제 2독서 필레몬서(Philemon) 9-10,12-17

복 음 ○알렐루야.

환호송 ○당신 얼굴 이 종에게 빛나게 하시고,
당신 법령을 저에게 가르쳐 주소서.○

복 음 루카(Luke) 14,25-33

영성체송 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하느님, 제 영혼이 당신을
그리나이다. 제 영혼이 하느님을,
생명의 하느님을 목말라하나이다.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임당	377	241	178
봉헌	417	265	268
성체	409	307	282
파견	401	217	343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 하느님의 말씀에 관하여 -

결 론

▶ “말씀의 어머니이며 기쁨의 어머니”

그리고 그분을 배었던 모태와 그분께 젖을 먹인 가슴은 복되
다고 외치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서는 참된 기쁨의 비밀을 알려
주십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이 오히려 행복
하다.”(루카 11,28).

예수님께서서는 마리아의 진정한 위대함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려 주시고, 이로써 우리 각자에게도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데
에서 생겨나는 이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과 맺는 개인적이고 공동체적인 관계는 하느님의 말씀
과 더욱 친숙해지는 데에 달려있다는 것을 모든 그리스도인에
게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이에게, 교회에서 멀어진 이들, 믿음을 버렸
거나 구원의 선포를 들어 보지 못한 이들에게도 말합니다. 주
님께서는 한 사람 한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목
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먹
고 그 사람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묵시3,20)

사람이 되신 아버지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새로이 만남으로
써 우리의 하루하루가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처음과
마지막에 계시며,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골로
1,17).

하느님의 말씀이 성령의 활동으로 우리 삶의 모든 날에 우리
와 함께 머무시고 사시고 말씀하시도록, 말씀을 듣고 묵상하
기 위하여 침묵합니다. 그럼으로써 교회는 영원히 남아 계시
는(베드 1,25; 이사 40,8 참조)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 언제나
새신되고 젊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 역시 성경을 끝맺는 위대한 혼인적 대화 속
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
하고 말씀하신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도 ‘오십시오.’ 하고 말
하여라. (……) 이 일들을 증언하시는 분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간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묵시 22,17,20)

로마 성 베드로좌에서 교황 재위 제6년

2010년 9월 30일 성 예로니모 사제 학자 기념일

◆ 교황 베네딕도 16세

2011년 9월18일(주일)부터 약 2년동안 본란에 연재해온 교황 베네
딕도 16세의 권고 ‘주님의 말씀’이 오늘주일(2013년 9월8일)로서
끝을 맺습니다. 다음주일(15일)부터 한국천주교 주교회(CBCK)의
신앙교리위원회에서 편찬한 ‘올바른 성모신심’을 연재합니다. 각자
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기도생활

그리스도교인에게 있어서 기도생활은 가장 기본이고 기도생활을 잘 실천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순간이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특히 하느님께 청원기도를 드렸는데, 그 응답이 없다고 느껴질 때면 더더욱 기도생활에 회의감을 느끼게 됩니다. 혹시 기도에 대한 응답이 내가 생각하는 시점에, 내가 생각하는 장소에서,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도착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은 아닌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느님께서 당신께서 생각하시는 시점에, 당신께서 생각하시는 장소에서, 당신께서 생각하시는 방식으로 이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보내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유다인들은 자신들이 하느님께 선택된 민족이라고 해도 하느님을 아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초세기 유대인 철학자 필론은 하느님이야말로 알 수 없는 분이라는 ‘불가지성’(不可知性)을 주장했습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 지혜서의 저자는 “어떠한 인간이 하느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지혜 9,13)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느님께서 스스로 당신 자신을 계시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느님의 개입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선택되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는 바오로 사도는, 오늘 제2독서에서 필레몬의 집을 도망친 하인 오네시모를 다시 필레몬에게 돌려보내며 당부를 전합니다. “그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명령할 수도 있지만, 사랑 때문에 오히려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필레 8-9) 여기

에서 바오로 사도는 그 당시 만연했던 노예제도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도 않았고, 사도의 권위로 필레몬에게 교인이 된 오네시모를 선처하라고 강권하지도 않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을 그 누구보다도 잘 이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생각하고 풀어나가는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라, 애덕(愛德) 실천에 호소하였던 것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모든 문제를 예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복음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뒤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루카 14,27)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루카복음사가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일화를 전하고 있습니다(루카 11,1-4 참조). 혹시 여러분은 입술로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라고 하면서 마음으로는 “나의 뜻이 땅에서와 같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성찰해 보십시오. 나의 뜻과는 사뭇 다른 하느님의 뜻을 헤아려 받아들이고자 노력하는 것이 어찌면 오늘날 우리들이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전영준 바오로 신부/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수

우리는 그리스도의 왕직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인간 생명에 대한 지지와 증진은 사랑의 봉사를 통해 완수되어야 합니다. ‘죽음의 문화’가 ‘생명의 문화’에 강하게 대적하고 종종 우세한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에 사랑의 봉사는 특히 절박하게 필요합니다.

-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생명의 복음」 회칙 87항 -

이번주 전례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이범주 다니엘	정광미 프란치스카	남성철 베네딕도
제1독서자	최태훈 아오스딩	박진수 스테파노	이상철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곽수진 보나	박혜경 레나타	이희경 크리스티나
제물봉헌자			토린스 북구역

다음주 전례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유보나 보나	신덕례 데레사	이재용 안드레아
제1독서자	박민환 미카엘	이민상 요한	모은기 다두
제2독서자	이은지 수산나	이순자 비비안나	정명모 마리아
제물봉헌자			P.V. 1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9월 순교자 성월

◆ 한가위 합동위령 미사

- 9월19일(목) : 오전 8시30분, 오후 7시30분
- 미사예물 : 사무실에서 접수 중

- ◆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순교자들 대축일 경축이동 : 22일(주일:본당의 날)

◆ 사회복지분과 정부혜택 상담소 9월부터 운영

- 상담내용 : 오바마건강보험, 저소득층프로그램, 메디케어, 메디칼 건강보험, 정부혜택신청, 장례및 묘지구입방법 등
- 상담일시 : 매달 첫째주일과 둘째주일은 예약없이 상담, 셋째&넷째주일은 전화예약자만 상담
- 장소 : 주일미사후 친교장
- 예약전화 및 e메일주소 : 사회복지분과장 이정훈 안셀모 ☎(310)908-8823, funeral1004@yahoo.com

◆ 구역장 / 반장 단합모임 오늘주일(8일)

- 장소 : 토런스 아서원 (오후 6시)
- 문의 : 소공동체부장 김명재 아가다 ☎(310)866-8778

◆ 백삼위 성모회 모임

- 일시 : 오늘주일(8일) 오후 1시 친교장
- 문의 : 성모회장 권순길 체칠리아 ☎(310)365-2183

◆ 아동비만방지 제3회 '사랑나누기 마라톤대회' 참여합니다.

- 일정 : 9월14일(토) 오전 8시~낮 12시
- 출발점 : LA 월턴극장앞(월서+웨스턴)
- 참가비 : \$10(10세이하의 참가비 없음)
- 참가신청 : 해피빌리지 ☎(213)368-2607
- 문의 : 백삼위 마라톤동호회 회장 윤희동 안토니오 ☎(213)256-5028

◆ 남가주 한인가톨릭 청년연합회 2013 성경퀴즈대회

- 일시 : 9월21일(토) 오후 6시30분
- 장소 : 성프란치스코 성당(2040 아테시아, 토런스)

- 성경범위 : 사도행전, 바오로서간 전체
- 문의 : e-mail uykcinhim@gmail.com
- 본당에서 작년에 우승한 배론청년회가 참가합니다. 많은 응원 바랍니다.

◆ 한가위 맞이 요셉회 친목 모임

- 일시 : 9월21일(토) 오전 10시 라이언팍
- 차편준비 : 당일 오전 9시30분까지 성당 주차장
- 부부동반 참석(푸짐한 음식과 선물 준비)
- 문의 : 정기은 비오 요셉회장 ☎(310)780-2789

◆ 성 빈첸시오 드폴 사제 기념일 맞아 감사행사

- 일시 : 9월27일(금) 저녁미사후 * 장소 : 강당
- 후원자들을 포함하여 교우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문의 : 박홍룡 요셉 빈첸시오 회장 ☎(310)283-5879

◆ 남가주성령쇄신봉사회 '성령체험 후기' 공모합니다.

- 내용 : 남가주성령쇄신대회 참가후의 성령체험 후기
- 규격 : Letter 용지 5매내외(글자크기 10포인트)
- 마감 : 2014년 3월31일(당선작발표 : 2014년 4월)
- 시상 : \$500(성부상), \$300(성자상), \$200(성령상)
- 접수 및 문의 : 본당 성령기도회장 강혜원 아네스 ☎(310)780-0369

◆ 26차 남가주성령대회 CD가 나왔습니다.

- 가격 : \$20, 사무실에 비치중

◆ 주일학교 견진교리반 학생모집(2013~2014 학년도)

- 새학년도 주일학교 시스템 운영이 전면 바뀌면서 견진반을 따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의 신청을 받고있으니 학부모님들의 관심을 바랍니다.
- 대상 : 주일학교 10학년~12학년
- 수업일시 : 9월11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7시~9시 강당
- 문의 : 신동윤 빈첸시오 견진교리교사 ☎(310)744-5878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9월8일(주일) : 토런스 남 2/3반(콩나물비빔밥 \$3) 주일학교(자모회임원 피자)
- 9월15일(주일) : P.V. 2/4반(제육덮밥과 상추쌈 \$3) 주일학교(11학년 짜장밥)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구자운 금동균 김선제 김일선 김정웅 김종렬 김주량 만기남 박씨니 박인식 박현주 배기엽 석순영 송재훈 신경훈 오세원 오일순 이근모 이상철 이은록 이인두 이일랑 전정일 조영희 주영석 최재은 최태훈 현석주 황인중 영희가보라	합계 : \$2,890
성전헌금	구자운 금동균 김선제 김주량 박씨니 박인식 박현주 석순영 신경훈 오세원 이근모 이상철 이은록 이일랑 전정일 조영희 최재은 최태훈 황인중 영희가보라	합계 : \$1,530
주일미사 헌금 : \$2,796	2차헌금 : \$878	감사헌금 : 소윤선 석순영 이인석

공지사항

◆ 주일학교 / 한국학교 오늘 주일(8일)부터 개학

긴 여름방학이 끝나고 오늘 주일(8일)부터 우리본당의 주일학교와 한국학교도 개학합니다. 방학동안 해이해진 마음을 주스리고 학교생활과 교회생활에 성실하게 임하도록 자녀들을 도와줍니다.

◆ 주일학교 수업(교리)시간 및 2차등록 접수

- 학생미사 끝난후 오전 10시30분~낮12시
- 주일학교 2차등록 접수 : 오늘주일(8일) 현관
- 첫째 \$140, 둘째 \$120, 셋째 \$100(넷째 무료),
- 자모회비 : \$50(가정당)

◆ 주일학교 복사단 모집

- 대상 : 주일학교 등록학생으로 첫영성체한 3학년이상
- 첫모임 : 9월21일(토) 오후 5시 성전(기존단원, 부모 꼭참석)
- 시험 : 주모경, 사도신경(니체아신경 중 택일) 암기

◆ 한국학교 개학 및 수업시간 변경

- 개학 : 8일 낮 12시30분 각교실
- 학부모설명회 : 8일 오후 3시
- 수업시간 변경 : 낮 12시 30분~오후 3시30분

◆ 주일학교 인턴교사 모집

- 대상 : 대학교 2학년이상 남녀학생
- 접수 : 간단한 자기소개서를 이메일로 접수
pius103ss@gmail.com

◆ 주일학교 교리교사 모집

- 대상 : 가톨릭신자로서 영어가능한 남녀교우(무경험도환영)
- 문의 : 이인석 주일학교 교장 ☎(213)258-8665

◆ 주일학교 찬양 SOEL 밴드 단원모집

- 대상 : 주일학교 등록학생으로 7학년 이상
- 모집분야 : 드럼, 제1기타, 남성보컬
- 오디션 : 9월22일(주일) 낮12시 2층 교사실
- 문의 : 데이빗 황 음악교사 ☎(310)956-2612

남가주 소식

◆ 제17회 남가주한인 가톨릭미술가회 정기전

- 오프닝리셉션 : 9월14일(토) 오후 5시
- 전시기간 : 9월14일~27일(금)
- 장소 : Lee & Lee 갤러리(3130 Wilshire Blvd #502, LA)
- 지도신부 : 김혜원 가브리엘 신부
- 문의 : 회장 제인 장 (818)667-2877

◆ 테메큘라 꽃동네 가정성화 피정에 초대합니다.

- 일정 : 9월20일(금)~21일(토) 오후 2시 파견미사
- 지도 : 정창용 타데오 신부, 김태영 야고보 수사
- 참가비 : \$80(준비물 : 슬리펄백, 세면도구, 성경, 성가책)
- 문의 : ☎(951)302-3400 전해경 발트로메오 수녀

소공동체 9월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장		김명재 아가다 (310)866-8778	
차 장		이희경 크리스티나 박은혜 클라우디아	
차 장		김희연 루시아 정병욱 올리아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1	이순자 비비안나 213-675-0498	신현화 헬레나 213-200-9538 9/6(금) 오후 7시
	2	김찬구 요한 701-6343	박선화 안나 701-6343 9/14(토) 오후 7시
	3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9/13(금) 오후 8시 성당
토런스 서 엄혜은 도로테아	1	강인모테오도시오 780-3258	김교복 레오 328-1827 9/15(일) 오후 5시
	2	심옥방 미카엘라 999-5808	이형삼 요셉 375-7397 9/14(토) 오후 6시
	3	정광미 프란체스카 617-1132	장정진 베로니카 713-7779 9/13(금) 오전 10시30분
토런스 남 최옥희 대래사	1	박문주 엘리사벳 968-8280	박문주 엘리사벳 968-8280 9/20(금) 오후 7시30분
	2	최순옥 스텔라 951-4710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9/4(수) 오전 11시
	3	조정선 마리아 945-8204	송미숙 미카엘라 850-2822 9/14(토) 오후 6시30분
토런스 북 조화숙 안젤라 213 272-8393	1	정병욱 올리아 404-1607	정동호 하상바로 404-1607 9/16(월) 오후 7시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윤희동 안토니오 365-7871	1/2	조소영 수산나 804-7645	주대종 다니엘 318-640-3656 9/21(토) 오후 7시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남경희 베네딕타 384-3289	1	박종선 리비나 213-700-6983	박종선 리비나 213-700-6983 9/13(금) 오후 7시
	2	김명재 아가다 866-8778	김관기 라파엘 541-3687 9/7(토) 오후 7시
	3	정종미 클라라 818-1799	김희석 요한 818-1799 9/7(토) 오후 6시
	4	이귀란 아베스 617-3568	김선재 바오로 617-3568 9/10(화) 오전 10시30분

이번 주 단체 모임

구역장 / 반장 모임	오후 6시
-------------	-------

다음주 단체모임

사목회장단 모임	오후 1시
----------	-------

기도의 법칙

TV 프로그램에서 도둑이 들었을 때의 대처법을 보았는데, 최대한 도둑과 눈을 마주치지 말고 도둑의 인상착의를 살펴 피라는 조언이었습니다. 그날은 도둑 특집이었는데 여러 가지 유형의 도둑이 등장했고, ‘바보 도둑 베스트 3’까지 나와 저와 아이들은 함께 웃다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문제는 그 후였습니다. 갑자기 “엄마 우리 집에 도둑이 들까봐 무서워.”라며 아이가 울먹였습니다. 어른이 보기에는 전반적으로 코믹한 내용이었지만, 아이에게는 도둑 그 자체가 무서웠던 모양입니다. 한참을 달래다가 “그럼 우리 같이 하느님께 기도드리자. 하느님! 우리 집에 도둑이 들지 않도록 해 주세요.” 양쪽에 팔베개를 한 아이들은 엄마의 한 마디 한 마디를 따라 기도를 하고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일주일을 기도했는데도 아이는 밤만 되면 제 귀에 대고 “엄마 자꾸 도둑이 들어오는 장면이 생각나서 무서워.”라고 속삭였습니다.

도둑이 들지 않았으니 하느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건데 아이는 계속 불안해했습니다. ‘믿음이 부족해서일까? 아니면 기도하는 방식이 잘못된 걸까?’ 갑자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누군가는 저에게 기도드릴 때 부정적인 단어를 쓰면 안 된다고 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솔직하게 하느님께 말씀드리라고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바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한다고요.

저는 기쁠 때나 감사할 때보다는 힘들 때나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고, 그 시간을 통해 치유를 받고 싶어합니다. “이번에만 잘 넘어가게 해주시면 주일미사에 더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왠지 제가 바라는 것만 얘기한다면 공정하지 못한 것 같아, 저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저도 이 정도의 예쁜 짓을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어느 때는 ‘하느님과 거래를 하는 걸까? 이걸 아녜요.’ 싶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기도에서 하느님의 뜻은 어떻게 나타나는 걸까요? 제가 원하는 것만 들어달라고 하는 게 기도일까요? 그럼 하느님은 만사형통 해결사입니까?

세상에 수많은 신자들이 있고 ‘참, 저런 사람이 교인이라니...’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는데, 하느님께서 기도를 올리는 그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다 공정하게 처리하실지 의문입니다.

그런 와중에 누군가 저에게 마음을 가볍게 하는 희망의 기도를 알려주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하기를 희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찬미와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한 기도의 법칙인지 알 수 없지만, 구구절절이 기도하

는 것이 힘들 정도로 낙담할 때, 이 기도 구절로 기도하다 보니 마음이 좀 가벼워졌습니다. 햇살처럼 모든 사람을 비추는 하느님께서도 또 어떤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저는 오늘도 화살기도처럼 잠깐 멈춰 희망 기도를 올립니다. 다시 한 번 궁금해집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어떻게 하시나요?

◆황정민 아녜스 / KBS 아나운서

‘하느님의 종’ 순교자 124위 시복시성 기도문

순교자들의 피와 땀으로
십자가의 신비를 드러내시는 하느님 아버지,
영광과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 주시고
교회가 성장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자애로우신 주님!
자랑스러운 믿음의 선조들에게
시복시성의 영예를 허락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그들과 한 목소리로
아버지의 사랑을 노래하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선조들의 순교 정신을 본받아
악의 유혹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에서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성령의 은총으로 도와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한국 교회의 주보이신 성모 마리아와 성 요셉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한국의 모든 성인 성녀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괜찮아 괜찮아

슬플 때 울다. 기쁠 때 울다. 화가 나 울고 억울
해 울다. 그리워 울고 미워서 울고 행복해 울다.
목을 놓아 울고 바보처럼 울고 주책없이 울다.
눈물을 흘린다는 건 이유가 무엇이든 지 그 순간
열렬하다는 증거. 지금 울고있다고 상심 말자.
열렬하게 생을 살고 있는 중이니.

◆이영 아녜스 / 수필가